

호스피스 사례 보고서

- 성 빈센트 병원 -

의사

▶ 주호소

1. Lt. Hip severe pain,
2. Both Leg edema
3. immobilization

▶ 현병력

18세 남자 환자는 2001년 9월 진단받음 (Osteosarcoma, distal femer Rt.)

정형외과적으로 수술받은후 2001년 10월~02년 10월 chemotrathy(MTX ifosfamide, adriamycin X 5cycle)마침. 2002년 3월 limb salvage op 후 2003년 10월 Rt. Scapula metastasis로 mass excision 후 환자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상기증상 주소로 Hospice care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 과거력/가족력

특이소견 없음

▶ 이학적 소견

- 활력징후 - 혈압은 120/80mmHg 맥박수 92 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도
- 외 견 - 만성병색 소견
- 두경부 검사 - 얼굴과 각막에 빈혈소견
- 흉부청진상 - 양쪽 폐음 감소되어 청진
- 복부검사 - 특이소견 없음

- 사지검사 - 양쪽 다리부터 발까지 매우 심하게 부어있음

▶ 임상검사소견

- 말초혈액검사 - 백혈구 13,400/ul, Hb/Hct 6.8/22.3 Platelet 515,000/ul
- 혈액검사상 - FBS 104mg/dl, BUN 23.6mg/dl Cr. 0.8mg/dl SGOT/SGPT 33/58IU/L Na/K 132/3.5mEq/L Amylase 23U/L TB/DB 1.4/0.7mg/dl 이었다.

▶ 방사선학적 검사소견

- 흉부방사선 양측의 흉막삼출액
- Bone Scan : Lt. Pelvic metastasis
- dopper sono : patent blood flow lymphnode.enlarge. reactive Lymphnode hyperplasia (in inguinal area)

▶ 치료 및 임상경과

DNR(Do Not Resuscitation) 서면 동의서 확보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는 말기암의 상태로 더 이상의 임상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며 만일 심

폐정지 상황이 되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No CPR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후 본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였다. 첫 입원 04.5.17~04.5.24
epidural block daily 20mg N-MPA 시행 후

통증 조절되고, diuretics, leg elevation PRC T/F후 하지부종이 완전히 빠진 후, 환자 원하여 서둘러 퇴원하였으나,
2004.5.25 새벽2시30분쯤 돌발적 통증을 심하게 경험한 후 본원 응급실 통하여 다시 입원.

* Pain Control

월/일	Pain Score	N-MPA IV (continue)	N-MPA PRN	Epidural Baxter (N-MPA)	IPF(PO)
5/17	8→2	60mg	6mg x 2		2400mg
5/18	8→2	80mg	10mg x 3		3200mg
5/19	8→2	120mg	12mg x 4	1회성 EP block	3200mg
5/20	8→2	150mg	15mg x 4		3200mg
5/21	8→2	180mg	18mg x 3	80mg(5day)	3200mg
5/22	9→3	180mg	18mg x 5		3200mg
5/23	9→4	180mg	18mg x 8		3200mg
5/24	9→3	180mg	18mg x 4	100mg(5day)	3200mg
5/27	9→5	180mg	25mg x 4	100mg(5day)	3200mg
5/30	9→5	180mg	45mg x 5		3200mg
6/1	9→5	180mg	45mg x 5	180mg(5day)	3200mg
6/3	8→3	180mg	45mg x 9		3200mg
6/5	9→3	200mg	45mg x 4	200mg(5day)	3200mg
6/7	9→3	200mg	50mg x 2		3200mg
↓	↓	↓	↓	↓	↓
7/9	9→2	420mg	42mg x 2	300mg(2day)	3200mg
7/10	9→4	420mg		350mg(2day)	3200mg

*dispnea --

Lt. Pleural effusion -- tapping refuse. Obs.

간호사

1. 환자의 정보

1) 현병력

본 환자는 18세 남자환자로 2001년9월에 골육종(Osteosarcoma, distal femer Rt.) 진단하에 정형외과 적으로 수술 받은 후 2001년10월~02년10월chemotrathy(MTX ifosfamide, adriamycin X 5cycle)마침. 2002년3월 limb salvage op후 2003년10월 Rt. Scapula metastasis로 mass excision후 환자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상기증상 주소로 Hospice care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2) 환자의 신체사정

식욕부진, 우울증상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하였고, 전신 쇠약 감 및 양측하지부종이 심하였고, 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움직일 때 통증이 더해서 거의 앉아 생활하는 상태였다. 내원당시 V/S은 혈압 120/80mmHg, 맥박 95회/1분, 체온 36.5도로 측정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간의 어렵게 받아왔던 치료과정의 결과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다. 안면은 매우 창백하였고, 어머니와 누나가 주로 돌보며 환자의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2. 환자의 주요증상 및 간호중재

1) 말기 암으로 인한 통증

양측 Hip 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향해 통증이 심하고 특히 움직일 때 마다 더욱 통증을 호소하였고 침상에 오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 통증지수가 8~9로 하루에Morphine sulfate 60mg를 5DW 500ml에 Mix하여 지속적으로 정맥주사 하였으며 PRN 주사용량에 따라 점차 요구량을 추가

(420mg)하였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선생님과 협의 하여 epidural baxter를 시술하여 통증을 사정하며 차츰 Morphine 투여량을 증가(350mg)시키며 통증 완화를 시도함.

신경외과 consult for Pain control

-- Ommaya valve insertion 권유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 refuse.

2) 영양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하지부종

호스피스 병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채소와 현미밥을 주식으로 고기는 억지로 참아내며 식이요법을 했다고 환자는 울면서 "엄마 나 이제 고기도 먹을 거야..."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는 Hb/Hct 5.3/17.4% 로 빈혈이 매우 심한상태였다. 입원동안 Packed RBC 400cc를 3차례에 걸쳐 T/F하였고 식사도 맛있게 하여 Hb/Hct 11.6/35.2% 로 check 되었다. 병실에서 좋아하는 독서를 할 수 있었고, 2차적 감염을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마사지 해주던 양측 하지 부종도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진작 와서 치료 받지 않고 고생하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퇴원 계획을 세웠다.

3) 불확실한 미래(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원에 다시 오기 싫었던 이유는 정형외과 병동에서 함께 투병하던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자신도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가끔 울면서 얼마큼 아파야 죽는 거냐고 물어오기도 하고 폐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야 만 죽는 거냐는 질문을 해오며 두려움을 표현 주었다. 오히려 빨리 죽게 해줄 수는 없냐는 요구도 해왔다. 무교였던 그 가 병동수녀님의 기도를 좋아하였다.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준비를 하자고 권하였다. 지금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가족들과 환자와 관계있는 사람들과 있었

던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정리를 하도록 권유했다. 자기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오기에 유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다. 얼굴이 환해지며 필기구를 찾았다. 며칠 후 환자는 가톨릭 세례를 받게 되었고 어색하던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아빠의 손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하며 아들로서 아빠에게 술 한잔 못 드리고 가게 되었다며 천국에서 삼겹살구어 소주대접 하겠다고 하여 아빠와 주변 사람들을 울게 했다. 엄마와 가족들에게 모두 편지를 쓰고 자기 자신에게도 편지를 써놓았고 영정사진마저도 본인이 선택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갈 곳을 바라보았다.

3. 평가

입원 초기에 환자는 죽음의 두려움과 심한통증으로 괴로워 하다가 Hospice 병동에 입원하여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말기 암의 자신의 병을 수용하고 침상에서 사랑니의 고통과 수염도 짙어지는 성장속에서 누구나 가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 앞서 간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히려 슬퍼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며 자신의 길을 의연히 떠나갔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초조하고 혼란스런 마음 상태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평온한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님은 바람 속에서-

사회사업가

1. 일반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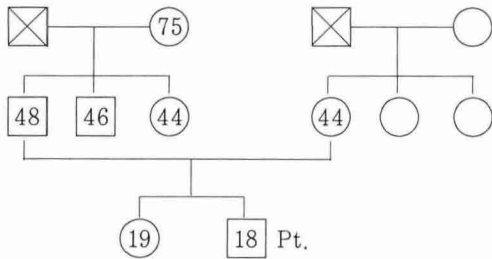
이름 : 차OO
 성별 : 남
 나이 : 18
 직업 : 무
 학력 : 고1중퇴(발병)
 종교 : 무교
 경제상태 : 중하
 정보제공자 : 엄마

4. 면담결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가족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고등학교 1학년 발병 후 주로 어머니와의 시간을 함께한 상태로 타인의 개입이 오히려 환자를 불안하게 함이 드러나고,

경제적인 측면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수입으로 가능한 상태이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원시 장례식장 계획까지 완료된 상태로 사회사업가의 개입이 필요치 않음.

2. 가족구성도



3. 입원력

2001년9월 진단받음(Osteosarcoma. distal femer Rt.)

정형외과적으로 수술받은후 2001년 10월~02년10월 chemotrathy(MTX ifosfamide, adriamycin X 5cycle 마침. 2002년 3월 limb salvage op후 2003년10월 Rt. Scapula metastasis로 mass excision후 환자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상기증상 주소로 Hospice care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원목자

1. 종교적 배경

처음 만났을 때 친할머니는 천주교에서 개종한 불교신자이고, 부모님은 무교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였지만,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도를 원하였지만 신앙을 선택할 마음은 꺾하였고, 어머니역시 신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로 원망스럽다 표현하는 상태였다.

2. 영적문제

1) 현실 인식과 수용의 거부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는 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매우 억울해하며 분노에 차서 가끔 울부짖음.

2) 죽음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답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 타인과의 대화를 외면하려 주로 눈을 감고 잠자는 양상을 띠.

3. 영적 돌봄의 목표 및 중재

1) 초기 단계 - 신뢰관계 형성

환자 스스로 계획하고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많은 관심은 갖되 직접적으로 다가서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기도로 다가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으며 궁금함을 질문 해오면 정성껏 답변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2) 중간 단계 - 영적평온함의 상태, 가족들과 사랑의 표현

그간의 삶을 회상하며 유서 작성을 권고였고, 매

우 필요한 것이라며 편지로 가족한분 한분께 글을 남기며 스스로에게도 편지를 썼다고 했다. 아빠도 다 용서하고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하며 세례를 받겠다는 청을 해오고, 교리를 알려주며 더욱 환자와의 귀한시간을 갖게 되었다.

3) 마무리 단계 -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저 같이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도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꿈짜지요?”, “천국에는 꽃이 많다던데 꽃에 물만 주고 있으면 어떻하죠?”, ...

“이렇게 잠자듯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누에 고치에서 날개 단 나비처럼 생명이 변한다고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는 웃으면서 저를 보내주세요.” 가장소중한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피며 천국을 끝없이 소망하며 주위사람들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느낄 정도로 그는 아름답게 가고 있었다.

4. 평가

환자는 호스피스활동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었다.

특히나 신앙문제는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들이 내세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던 엄마, 아빠도 매우 난감해 하며 자식 키우려면 믿음이 꼭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임하는 모든 이는 종교의 벽을 헐어버리고 대상자의 영적호소에 귀 기울이며 다가서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

첫 만남은 창백한 얼굴색과 엉덩이 아래 부분 이 많이 부어있고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였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보이고 계셨으며 12시30분에 호스피스회의실 쇼파로 자리를 옮겨 앉아 호랑이의 표호랄까 울부짖고 있었다. 조금 후 마음의 평정을 찾으며 잠시 기대어 잠이 들었다.

5월21일 어머니가 밝은 모습으로 아드님과 속닥속닥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내 가슴이 쓰러오는 것은... 얼마나 아픈 마음을 속으로 삭히실까 싶다. 활짝한 환자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5월 27일

신부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았다. 편안히 잠만 자고 있다. 옆에 애처로이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니 봉사자들의 마음도 저러왔다.

5월 31일

엄마가 정성껏 아들을 보살피며 웃음으로 위로하며 간호를 하고 있었다.

6월 4일

옆 침상에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있는데, 본인도 감겨 달라하여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로 말렸더니 매우 개운하다며 머리 감은지 열흘이나 되었다며 상쾌해 하여 우리들의 마음도 덩달아 기뻐했다.

6월 7일

왼쪽 다리 대퇴부위에 통증으로 손을 대지 못하게 베개를 대고 있었고 오른쪽 둔부에 부채질하고 있어 도우려 했으나 거절하였다.

6월10일

누나와 함께 책을 보고 어머니는 책을 사러 나갔다면 봉사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부탁하였다. 계속 방문하여도 부탁도 안하고, 도움도 거절만 하였기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발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발 마사지가 흡족하다면서 어머니와 누나도 배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시원하지 않을뿐더러 약하다고 말했다. 만족한 표정을 지었으며 왼쪽다리에(무릎)인공 관절이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처음 발병한 다리라고도 말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밝은 표정을 보여 주었다. 고마웠다.

6월14일

엄마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며 표정은 밝았다. 책을 많이 좋아한다며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6월16일

얼음주머니를 얼굴에 대고 있어 물어보니 사랑니가 나오느라 치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발 마사지를 부탁해서 조심스럽게 했다. 책읽기를 좋아해서 옆에다 책을 쌓아놓고 있다. 성서를 읽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갖다 주었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몇장 읽고 그만하였다. 욕창이 생겨 본인이 체위를 바꾸었고 예민해졌다.

6월19일

환자가 원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다. 본명은 환자가 기억하고 있는 선배의 “세례자요한”으로 하고 병자성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환자는 부끄러워하며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성호를 그을 때는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커다랗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였다. 엄마는 계속 아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6월21일

축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니 웃으면서 맑은 표정이었고 콜라를 먹으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 해졌다며 자신을 표현했다.

6월25일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제 삶의 의미였어요, 우리 아빠 강한척하시지만, 마음이 약하셔요. “

엄마는 서둘러 아빠에게 전화했다. “엄마, 엄마는 천사였어요, 절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려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까 2인실로 병실을 옮겼고 다시 안정을 찾은 듯 하다. 아빠는 휴가를 내어 아들에게 지극정성의 간호를 하고 있다. 저는 아들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제 손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본인이 저렇게 준비를 하며 가는데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영정사진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으로 해달라며 선택해 놓았단다. 그는 천국을 몹시도 그리워했다. 누군가 천국은 꽃이 많이 피어있다고 했는지 천국 가서 꽃에 물만 주고 있으면 어떨는지? 엄마에게 농담을 할 정도의 여유를 보이며 그곳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늘 마음속에 환하게 웃던 그의 하얗고 가녀린 모습이 떠오른다.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곳에는 큰 집들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있으니
나는 우리 작은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에서 나는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가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비록 조그만 가게이지만 이곳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니
이 작은 가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낮은 일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비록 낮은 일자리이지만 여기에서 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으니
이 낮은 일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는 내 호주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비록 가난한 내 호주머니이지만 그 곳마다 친구의
우정을 담고 삶의 지혜를 채울 수 있으니
나의 빈 호주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부자유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부자유스럽지만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비록 잠시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웠으니
나는 지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에서 나는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중에서-